

활용제목명	큰느타리버섯 발이방법 개선을 통한 기형버섯 발생경감					
연구개발자	소속기관	경기도농업기술원 (버섯시험장)	성명	하태문	전화 및 e-mail	031)764-0265 mushha@kg21.net
공동개발자	"	"	"	주영철	"	031)764-0265 jycheoul@kg21.net

1. 연구성적('03, 경기도원)

- 큰느타리버섯의 생육환경 조절 미숙으로 기형버섯 및 병해발생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되고 품질이 저하됨
- 버섯 발이유기 양상은 환기량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CO₂ 1000±250ppm에서 비정상발이율이 10.7%로 2000±250ppm보다 36.9% 감소하였음
- 균류기방법을 균류기 후 무관수+역상으로 하였을 경우 관행 대비 기형버섯발생율이 5.3% 감소하였고 수량이 11% 증가하였음

표 1. 발이유기시 환기량(CO₂농도)에 따른 발이특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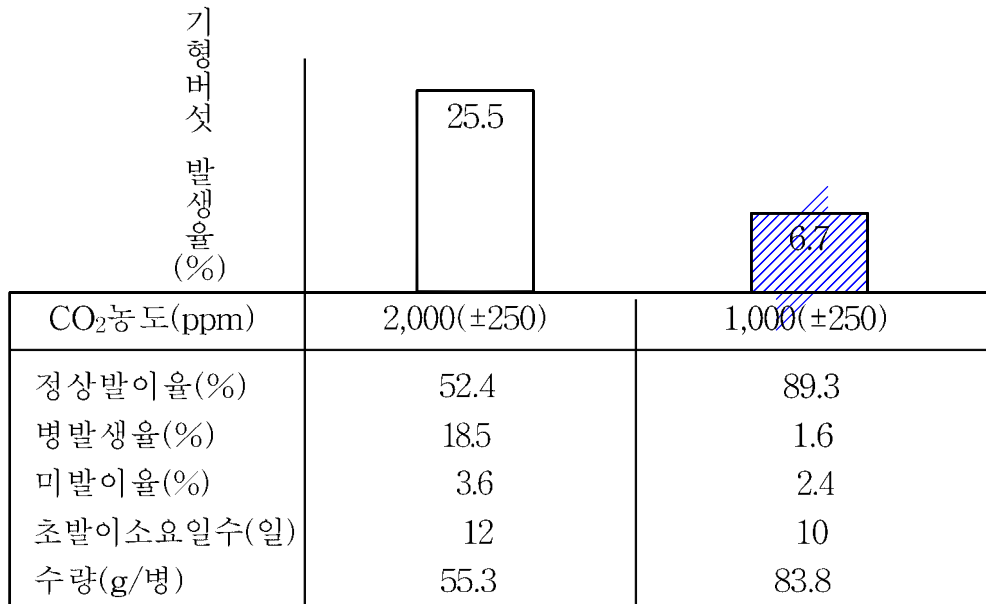


표 2. 발이방법별 발이특성

발이방법	균균기후 관수+역상	균균기후 무관수+역상
기형버섯발생율(%)	18.6	13.3
병발생율(%)	1.5	1.6
유효경수(개/병)	2.0	2.2
수량(g/병)	68.3	75.5

○ 파급효과

- 큰느타리버섯 기형버섯 발생경감 25.5% → 6.7%(△18.8%)
- 발이율 향상으로 안정생산 78.4% → 83.7%(△5.3%)

2. 적 요

- 큰느타리버섯 발이유기시 환기량이 많을 경우(CO₂농도 1,000±250ppm), 정상발이율이 89.3%로 환기량이 적을 경우(CO₂ 2,000±250ppm) 52.4% 보다 36.9% 개선되었고 기형버섯 발생율은 6.7%로 18.8% 감소하였음.
- 큰느타리버섯 배양완료 후 자실체 발생유도를 위해 발이방법을 개선한 결과(균균기 후 관수 + 역상 → 균균기 후 무관수 + 역상), 발이율이 83.7%로 관행(균균기 후 관수 + 역상) 78.4% 보다 5.3% 향상되었고, 기형버섯 발생율은 13.3%로 5.3% 감소하였음
- 경제성분석 결과 발이방법을 균균기 후 관수 + 역상(관행)에서 균균기 후 무관수+역상으로 개선한 결과 발이율 개선 및 수량증가로 소득(원/1000병/년)이 2,600,434원으로 관행대비 11% 증가하였음.